



### 운상와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②

보설(普說) · 방참(放參) · 청익(淸益)

#### 대중·신도 요청서 열리는 보설

보설(普說)이란 '널리 대중들에게 법을 설한다'는 뜻으로서 선종사원(종림)의 주자가 행하는 법문(설법) 가운데 하나이다. 장소는 법당에서 하기도 하고 방장에서 하기도 하는데, 법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법당에서 하더라도 평상복 차림으로 할 뿐, 가사 등 법복을 입지는 않는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상당범어, 소참 등은 정기적, 의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보설은 비정기적인 설법으로서 대중들이나 유력한 신도가 요청했을 경우에만 한다.

(적수백장정규)(1338년 편찬)에는 보설에 대해, "대중들이 향을 사르고 청하면 법상이 설치된 곳에서 행한다. 또는 단월(신도)의 특별 요청이 있을 때 대중을 위하여 법좌에 올라가 설법한다"라고 하여, 대중들이나 신도들이 요청하면 행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설은 '특별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설은 대중적인 설법으로서 송대 초까지만 해도 한 적이 없었다. 당시까지 법어는 상당, 소참, 조참, 만참으로서 모두 4가지였는데 이것은 모두 전문 수행자 즉 스님들을 위한 법문이었다. 그 후 신도 등 대중들을 위한 '보설'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법문이 생긴 것인데, 이 시기 선불교는 율종, 화엄종, 천태종, 등 중국불교의 모든 종파는 물론, 중국의 민간신앙인 도교까지 제치고 종교계의 전면에 등장했다. 선은 승속 상하층에 깊이 각인되어 아낙네들도 저자 거리에서 선을 담론할 정도였다. 수행승들과 일반 불자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대중적 성격의 법문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른바 보설이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선불교가 보다 대중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가고 있었다.

#### 보설, 중국 종교계 전면에 확산

#### 청익 희망자는 방장 사자에게 신청

보설은 간화선의 거장이며 사회성 짙은 선승인 대혜 선사(1089~1163)에 의하여 크게 유행했지만, 처음으로 보설을 행한 이는 대혜 선사에 약 60년 앞선 진정극문(眞淨克文, 1025~1102)선사이다. 이후 오조법연(1024~1104)의 제자로서 이른바 삼불(三佛)이라고 칭해졌던 불안정원(1067~1120), 불감해근(佛鑑慧勤, 1059~1117), 불과원오(1163~1135)도 보설을 했다.

무작도중(無着道忠, 1653~1744)이 편찬한 <선림상기전>에는 "보설은 곧 승좌설법(법상에 올라가 설법하는 것)이다. 상당법문도 승좌설법이다. 다만 차이점은 보설을 할 때는 향을 사르고 축향(祝香)하지는 않는다. 법의를 입지도 않는다. 보설은 진정극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삼불(三佛; 佛眼, 佛鑑, 佛果)도 행했고, 대혜종고에 이르러 바야흐로 크게 성행했다(三佛亦行之, 到大慧方盛)"라

고 말하고 있다.

앞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히 대혜 선사(1089~1163)가 많은 보설을 남겼는데, <대혜어록> 30권 가운데, 제13권에서 18권까지가 보설이다. 읽어보면 수행자들의 청에 의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거사 등 유력한 신자의 요청에 의하여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내용은 거의 상당범어와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 있다면 상당범어에 비하여 내용이 길고 군말, 군더더기가 많은 편이다. 대중적 성격을 띠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보설을 요청하는 이가 거사 등 일반 불자일 경우 상당범어처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 방장의 사정으로 법문을 쉬는, 방참

방장(주지)이나 조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문을 쉬는 것, 법문을 '뺨' 치는 것을 방참(放參)이라고 한다. 주로 고급 관료나 귀한 외인이 왔을 때, 또는 임시 기도, 행사, 불사 등으로 인하여 바쁠 때는 설법을 거를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미리 승당이나 방장, 또는 중로 등에 방참패(放參牌)를 걸어서 알린다. 상당범어를 할 때는 상당방참패를, 조참을 할 때는 조참방참패를, 만참을 할 때는 만참방참패를 거는데, 부정기적인 법문인 보설은 방참패가 없다. 그리고 방참 때가 되면 다시 방참종을 쳐서 재차 알린다. 법이 없는 날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된다.

#### 선불교 독창적 교육 시스템

수행자가 별도로 방장이나 조실스님을 찾아가 질문하는 것, 더 가르침을 청하는 것을 '청익(淸益)'이라고 한다. 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수행자로서는 큰 이익(利益)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익은 주로 상당범어나 조참, 만참 등 법문을 듣고 난 후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의문 나는 점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조실이나 방장(주지)화상을 면담하여 묻는 것을 말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라도 찾아가서 질문할 수 있다. 그 역시 좌선, 설법 등과 함께 선불교의 독창적인 교육시스템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時)도 때도 없이 무작정 가서 불쑥 불쑥 물을 수는 없다. 청익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방장사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사자가 주지에 아뢰고 주지가 시간을 내어 윤택하면 입실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엄숙하다. 청익자는 가사를 입고 방장실에 도착하여 정중한 마음으로 꿇어앉아서 마루에 있는 작은 종(鐘)을 3번 친다. 그 종을 정중(定鐘)이라고 하는데, 청익하기 위하여 왔다는 신호이다. 이윽고 사자의 안내로 주지(방장) 앞에 가면 먼저 합장하고 인사한다. 그런 다음 향을 사르고 9배를 하고 질문한다. 질문이 끝나면 다시 3배한다. 사자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한다. 이 사자는 동자승이 아니라, 막강한 실력과 범행을 갖고 있는 대선배이다.

# 예의만 갖추면 어떠한 질문도 가능



2009년 본사와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 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지리산아산법석에서 혜국 스님의 법문이 끝난 후 한 재가자가 스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

조실이 방장이 설법할 때, 또는 언제라도 학인이 묻고 답하는 것은 거의 상례화 되어 있다. 이것을 '빈주문수(賓主問酬)'라고 하는데, 학인(賓)이 묻고(問) 선사(主)가 답한다(酬)는 뜻이다. <임제록>에 나오는 '빈주역연(賓主歷然, 주객이 돌이로구나)'이라는 말도 학인(賓)과 선사(主)를 가리킨다. 크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즉 예의를 갖춘다면, 어떤 경우든 어떤 질문이든 문제시 하지 않는다. 그것이 곧 선문답, 범거랑이다. 격조 있는 질문이라면 주지로서는 그 이상 반가운 일도 드물 것이다. 방장실을 노크하여 질문할 정도라면 그는 이미 투철한 수행자임에 틀림없다. 깨달을 날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고 평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사실 오늘날 전해오는 <운문록> <임제록> 등 모든 선어록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선사와 수행자, 선승과 선승들은 활발한 문답을 통하여 생동감 넘

치는 청익과 문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인(賓)과 선사(主)가 서로 묻고(問) 답(酬)하여 중요(宗要, 핵심)을 드높이고 발분(發憤)시키는 것은, 법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賓主問酬, 激揚宗要者, 示依法而住也)"라고 선문답이 곧 살아 있는 선의 정신이고 기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선불교의 가장 값진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활발하게 살아가고 있는 선자(禪者)들의 생활상이다.

그러나 사실 많은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선뜻 질문하거란 쉽지 않다. 질문자로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별 것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은 질문으로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불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대화, 개인 면담을 제도화했던 것이다. 오늘날 강의 끝난 후 별도로 교수실로 찾아가서 묻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것을 통하여 깨달은 이도 많았기 때문이다.

청익(淸益)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알 수 없으나 꽤 오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제록> 22단 용야참문(龍牙參問) 장(章) 끝에 청익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떤 형태이고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한 단락을 끌어 들여 보고자 한다.

"먼저 용야 스님이 임제 선사께 질문했다.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임제 선사가 대답했다. 나에게 저 선관(좌선 후 설 때 등을 기

대는 판)을 좀 건네주게(현재 상황은 선당이라고 생각됨). 용야 스님이 곧 선관을 건네 드리자 임제 선사는 그 선관을 받자마자 곧바로 '탁' 한 대 때렸다. (...)그 후 어떤 스님이 방장실로 가서 물었다(入室淸益). 화상께서는 행각할 때에 두 존속(고승)에게 참문한 적이 있는데, 이 두 존속을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하지만 그 속에 조사의 뜻은 없다. (龍牙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 與我過禪板來. 牙便過禪板與師, 師接得便打. (...)有僧, 入室淸益, 和尚行脚時, 參二尊宿因緣, 還肯他也無. 肯即深肯, 要且無祖師意)"

"청익"이라는 말은 이미 있던 말이다. 공자의 언행집인 <논어>에도 보인다. 어느 날 제자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질문했다. "어떻게 정치를 해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술선수법하고 노력하라." 자로가 다시 부연 설명해 줄 것을 청하자 다시 공자가 말했다. "정치하는 자가 게으르면 아니 되느니라(子路, 問政. 子曰, 先之勞之. 子路, 淸益. 子曰, 無倦)"

매우 훌륭한 말이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은 고급 요청에서 술 먹기 바쁘고 국내외로 놀러 다니기 바쁘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깊이 새겨야 할 금언(金言)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9@hotmail.net

#### 방장 설법 때 학인 문답 사례

#### 선문답은 살아있는 선의 정신

치는 선의 세계를 창조해 왔던 것이다. 선문답은 각자(覺者) 곧 부처를 탄생시키는 결정적 순간들이 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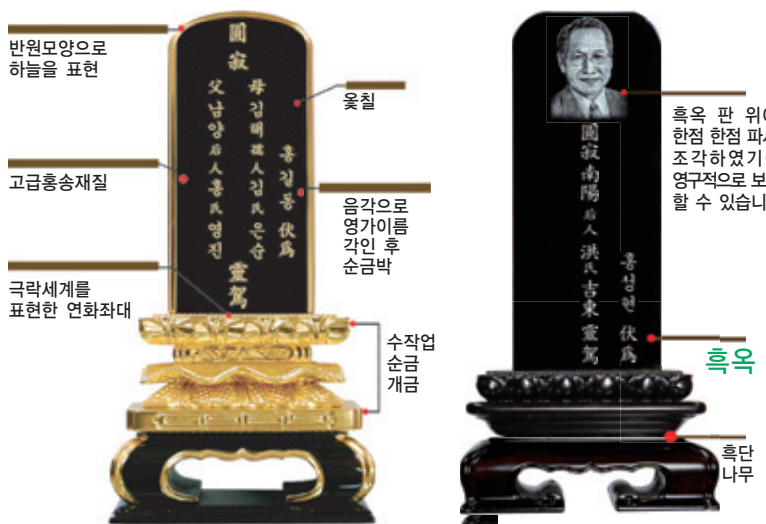
<전등록> 6권 백장선사 장(章)에 수록된 <선문규

## "명품"의 황금위패, 흑옥위패로 영단의 품격을 높여 드립니다 !!

### 황금영구위패는?

※ 디자인특허 ※

◆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 황금위패로 영구위패만의 품격과 신도는 조상에 대한 숭모의 뜻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작업 조각

### 흑옥위패단은?

※ 디자인특허 ※

◆ 자연석 고급석재로 제작하여 영단의 안정감과 품격을 높여줍니다.  
◆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신도가 위패제작에 동참할 것입니다.  
◆ 뒷면에 고유번호와 가족이름을 넣을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 좁은 공간에 많은 봉안영구위패를 장엄 할 수 있는 맞춤형 흑옥위패 단입니다.  
◆ 사찰비용없이 영단 설치와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전국 어디든 각 지역 사업부에서 샘플과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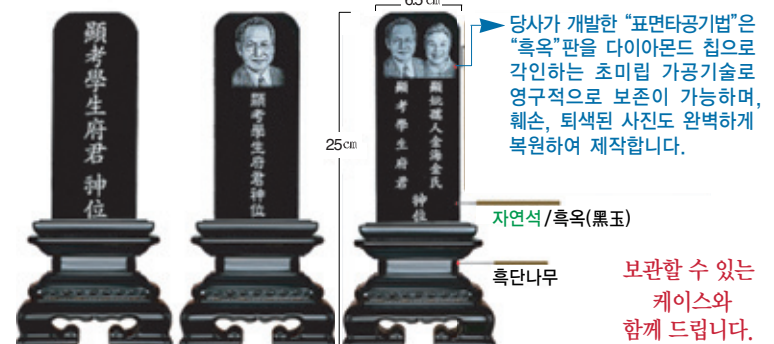
### 흑옥 제사용 위패는?

※ 디자인특허 ※

◆ 제사 때나 명절에 지방위패에 조상님의 사진과 함께 제작한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면 생전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방을 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흑옥(黑玉)과 흑단 나무를 부착하여 제작하였기에 영구적으로 보존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사진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작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당사가 개발한 "표면타공기법"은 "흑옥" 판을 다이아몬드 칩으로 각인하는 초미립 가공기술로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며, 훼손, 퇴색된 사진도 완벽하게 복원하여 제작합니다.

◆ 자연석/흑옥(黑玉) 흑단나무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와 함께 드립니다.

상담전화: 02)966-9650

(주)대양아트 FAX: 02) 921-9650

본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e-mail: dyart@daum.net